

# 2016.12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6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6.12.27	대전MBC 대회의실	8/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이승선, 신종성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4	5	-	-	9	-	9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6	3	-	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7건	7건	12월
교양	다르다와 틀리다, 야채와 채소, 바래다와 바라다 등 어법에 맞는 표현 필요	TV 생방송 아침이 좋다(12/13) 등, 라디오 즐거운 오후2시(12/7) 등에서 어법에 맞는 단어 사용	12월
교양	저출산 문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길	대전문화재단과 함께 매년 칠월칠석에 '견우직녀 축제'를 열어 결혼적령기 사람들에게 결혼문제와 다산장려를 기획, 행사 후 방송	매년
교양	토크프로그램(토크&조이) 출연자 활동 모습 영상으로 다양하게 담아주길	개그맨 이홍렬(12/11), 교육전문가 박재원(12/18), 배창호 감독(12/25) 출연자 활동상황 영상처리	12월
교양	특집 다큐멘터리(화이트 골드 400년의 여정) 재방송 필요	3부작 12월 19일, 20일, 21일 오후6시에서 7시에 재방송	12월
보도	헤드라인 뉴스 순서와 본 방송 시 뉴스 순서가 다르다	12월에 방송된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등 헤드라인 뉴스 순서와 본 방송 시 뉴스 순서 일치	12월
기타	사보 “M스토리” 다양한 내용 (방송제작 등)을 지면에 담아 독자에게 전달	방송가 사람들(제작, 보도, 기술 등), 퇴직선배와의 만남, 문화행사 등 다양하게 편집	12월
교양	특집 다큐멘터리(화이트 골드 400년의 여정) 한국도자기 방향 제시 필요	특집 다큐멘터리(화이트 골드 400년의 여정) 3부(12/21)에서 한국도자기 방향제시	1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6. 5. 31. ~ 2017. 5.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정민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과학기술단체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랑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과학기술단체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박정훈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2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대전MBC 창사 52주년 특별기획 &lt;화이트 골드, 400여년의 여정&gt; 3부작은 도자기라는 우리의 일상속의 제품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제대로 생각하게 하는 작품으로 여겨진다. 특히 타이틀 &lt;화이트 골드, 400여년의 여정&gt;은 이번 특집 다큐멘터리(3부작)에 일반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일조 했으리라 본다. 그만큼 일반프로그램이나 특집 프로그램의 타이틀은 내용 전개 못지않게 중요하다. 1부 ‘모방, 창조의 여명’, 2부 ‘장인의 열정이 빛은 세계’, 3부 ‘전통, 혁신을 더한 이름’ 등 서브타이틀들은 각 시리즈의 내용을 제대로 함축한 느낌이 더해져 전체적인 3부작을 대하는 데 별 부담감이 없었다.</p> <p>도자기를 둘러싼 동 서양의 다툼을 통해 발전을 거듭한 도자기의 역사를 이번 특집 다큐멘터리를 계기로 시청자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도자기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그리고 중국, 일본 등의 현지 촬영을 통한 영상들은 대전MBC의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 제작 능력을 보여 줌과 동시에, 그동안 도자기와 관련한 여러 특집 다큐멘터리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겠다.</p> <p>이번 특집 다큐멘터리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자기 산업의 현주소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점들을 지적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의 도자 예술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p> <p>아쉬운 점은 로컬 프로그램 편성의 제약 때문에 평일(목요일) 밤 11시10분에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의 주시청대를 벗어 난 점, 3부작이 1주일 간격으로 편성 된 패턴으로 3부작의 연결고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사전 프로그램 PR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겠다(김학선).</p>	<p>대전MBC 창사 52주년 특별기획 &lt;화이트 골드, 400여년의 여정&gt; 3부작은 도자기를 둘러싼 동서양의 하이테크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에 이르기까지 도자기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주요국의 역사를 역추적하고, 도자기의 현재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펼쳐 보았다.</p> <p>정규시간대에 이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 시청자들을 위해 재방송을 하였다. 12월 19일, 20일, 21일 3일간 저녁6시에서 7시에 연속적으로 재방송을 하였다.</p> <p>앞으로 특집 다큐멘터리에 대해 예고PR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고 방송시간대 편성도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결정하겠다.</p>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 는 주부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p>	<p>날씨 정보를 도입부에 한 번, 종료되기 이전 시점에 한 번 2번을 연결한다. 하</p>		○	

	<p>공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시청자와 항상 소통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다. 특히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뉴스&amp;정보,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뉴스&amp;이슈, 금요일에는 주간뉴스브리핑 코너로 구성되는 데 딱딱하기 쉬운 뉴스보도를 잘 설명해 주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진행하는 김경섭, 박윤희 두 진행자가 굉장히 밝고, 주고받는 멘트가 시청자들에게 유쾌함을 준다.</p> <p>전체적으로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아침을 시작하는 데 시청자들에게 힘을 주는 활력소가 되는 것 같다.</p> <p>궁금한 것은 날씨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와 끝날 때 2회 연결이 되는 데 그 날의 날씨 정보를 동일한 내용으로 2회나 제공할 필요가 있을 까 싶다(강은혜).</p>	<p>루를 여는 시점에 아침에 전달하는 날씨의 중요성은 크다. 아침시간대 출근시간 준비를 하라 등등으로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몰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2회 방송을 하고 있다.</p> <p>앞으로 이 부분은 제작진과 논의를 다시 한 번 나눠 시청자들이 시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p>			
<p><b>보도</b></p>	<p>2016년 한 해는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격랑의 한 해였다. 유난히 사건 사고도 많은 한 해였다. 시사토론M에서는 불안과 갈등, 부패를 한 해의 키워드로 하여 2016년 한 해를 돌아보았다(12월25일).</p> <p>우선 불안과 갈등의 사건 사고로 강남역 무차별 범죄 사건과 지진을 둘러싼 원자력 안전 문제를, 부패의 연결 고리로 청탁 금지법과 촛불 및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짚어보고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p> <p>시청자 위원으로서 이날 방송 평을 한다면, 우선 토론 내용별 배분 시간 면에서 촛불 및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보다 강남역 무차별 범죄 및 가정폭력 사건 사고가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는 것이 좀 아쉬웠다. 한 해의 사건이나 이슈의 중요도로 보아도 촛불 및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다른 사건사고나 이슈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배분되었어야 했다고 본다.</p> <p>그리고 두 번째로 토론시 패널 뒷 편의 TV모니터 배경화면 부분이다. 패널 뒷 편 2대의 모니터에는 그 날 토론의 내용과 부합하는 화면을 띄워 놓고 있다. 하지만 항상 2대의 TV모니터에 고정된 이미지 화면은 토론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시청자로 하여금 혼선을 주기도 한다. 이날 모두발언 및 영상 전반부에 패널 뒷 편 TV모니터에 비춰지는 광화문 촛불집회 화면이 그러한 경우이다. 패널들은 가</p>	<p>전체 키워드를 불안과 갈등, 부패와 촛불로 나누고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불안과 갈등 부분을 먼저 토론했다.</p> <p>토론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려고 노력했으나 약간 의도를 벗어난 감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p> <p>배경 화면은 주제가 다양하다보니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제에 맞는 화면을 준비해 토론 진행에 맞춰 바뀌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p>			

	<p>정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춰지고 있는 화면은 광화문 촛불집회 사진이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셨음 한다(장백기).</p>			
<p><b>교양</b></p>	<p>“허참의 토크&amp;조이”에서 많은 이들의 취미생활 중 하나가 영화감상인 요즘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온 배창호 감독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12월 25일). 그동안 근황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항시 머릿속으로는 작품구상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장독대에 비유해 말을 해주었다.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제작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하면 밖으로까지 느껴졌다.</p> <p>배창호 감독의 18편 작품 중 안성기 배우와 함께한 영화가 13편이라며 둘 사이의 인연을 이야기해주었는데 국민배우로 칭해주는 안성기 배우의 이야기를 풀어줌으로써 재미를 더해준 것 같다.</p> <p>그동안 촬영한 작품들과 에피소드를 설명해줌으로써 지루하지 않았지만 영화거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성정모).</p>	<p>배창호 감독은 1982년 ‘고방동네 사람들’로 데뷔하며 그 해 대중상, 백상예술대상 등 신인감독상을 휩쓸며 한국 영화의 무서운 신인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리고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기쁜 우리 젊은 날 등을 잇달아 흥행시키며 1980년대 최고의 스타 감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p> <p>1990년대부터는 ‘러브 스토리’를 비롯해 여러 영화에 직접 출연하고, 저예산 독립영화를 연출하며 영화 인생의 2막을 열어가고 있다.</p> <p>늘 마음속 향아리에 차기작을 준비하며 영화에 대한 열정 하나로 살아온 배창호 감독의 영화 같은 인생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제작 시 유의하겠다.</p>		
<p><b>보도</b></p>	<p>연말인 만큼 올 한 해를 돌아보는 프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사토론에서 방영을 해주었다.(시사토론M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다”). 다사다난했던 만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지 궁금했다. ‘불안&amp;갈등’이라는 키워드를 시작으로 강남역 살인사건, 아동학대, 불량급식, 지진 등 영상을 보여주며 각 위원의 논평이 이어졌다. 아쉬웠던 부분은 VCR에 대한 내용들이 아닌 ‘그 근처를 웃도는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나누었는데 변호사로서 김영란법 시행 초창기에 인터뷰와 방송촬영을 해온 터라 아주 흥미로웠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임원정규 사무처장이 말한 멘트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3만원, 5만원, 10만원에 벌벌 떨어 있는데 메가톤급 최순실 사건이 터져 김영란법을 지키면 뭐하나...” 라는 멘트였다. 모두가 느끼고 있던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니 보는 이를 속 시원하게 해주었다.</p> <p>구체적으로 한 해를 돌아봤다고 할 수는</p>	<p>한해를 정리하는 토론으로 이끌다 보니 특정 사안에 충분히 몰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토론이 주제를 걸돈다는 느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p>	<p>○</p>	

	없겠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 잘 짚어 준 것 같다(성정모).			
교양	“토크&조이” 스튜디오 초대석의 배경화면이 산만하다. 화려한 듯 보이기는 하지만 화면이 흩어지면서 산만하다. 배경화면을 다시 점검해주길 바란다(이상진).	배경화면 및 세트는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이루어진다. 현재 배경화면은 봄 개편할 때 다시금 고민해 보겠다.		
교양	전국이 보인다(12월 17일) “대설에 어울리는 음식” 편에는 충북 옥천 0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콩두부를 소개하였다. 옥천농민이 직접 생산한 유기농 햇콩으로 콩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콩두부를 소개할 때 자막으로 ‘GMO zero 우리 콩두부’ 라고만 표기하였다. GMO에 대한 설명 없이 자막으로만 표기한 것은 시청자들에게 무성의해 보인다. GMO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자막이나 멘트로 처리를 했어야 한다(정철상).	방송에 나간 아이템은 MBC충북에서 제작한 것이다. 타사에서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미리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강하여 처리를 하겠다.	○	
보도	제작부에서 “화이트 골드 400년의 여정”이나 “백제, 세계를 품다” 등과 같은 기획 특집 다큐멘터리를 선보였다. 제작자의 노고를 엿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노력해서 만든 특집 다큐멘터리가 일회성 방송으로 끝나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제기했던 사안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시사토론 M”에서 기획특집 다큐멘터리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을 점검하는 토론 한마당을 가지면 좋겠다(박정훈).	“시사토론 M”은 타이틀에서 제시하듯이 토론에서 취급하는 사안은 보통 시사적인 것들이다. 제기한 사안은 프로그램 제작부와 논의를 해 어떤 방향이 좋은지 고민을 해 보겠지만 “시사토론M”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장르가 달라 어떨지 모르겠다.	○	
보도	12월 9일은 대통령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다. 이 소식을 뉴스데스크에서 소개를 하였다. 대전의 대덕대로를 중계차로 연결하여 기자가 대전, 세종, 충남의 상황을 전달하였다. 대전 이외의 지역은 자료화면을 사용해서 그런지 화면 속에 군중 인파가 많은데 유독 중계차로 연결한 대덕대로의 인파는 그냥 썰렁하였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중계차로 연결된 그 시각에는 집회가 마무리되어 화면에 인파가 없는 썰렁함 그대로 노출이 되었다. 당일 집회를 사전에 미리 촬영하여 메인 방송시간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더라면 좋았겠다(정민근).	앞으로 뉴스에 중계차를 투입할 경우 현장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	